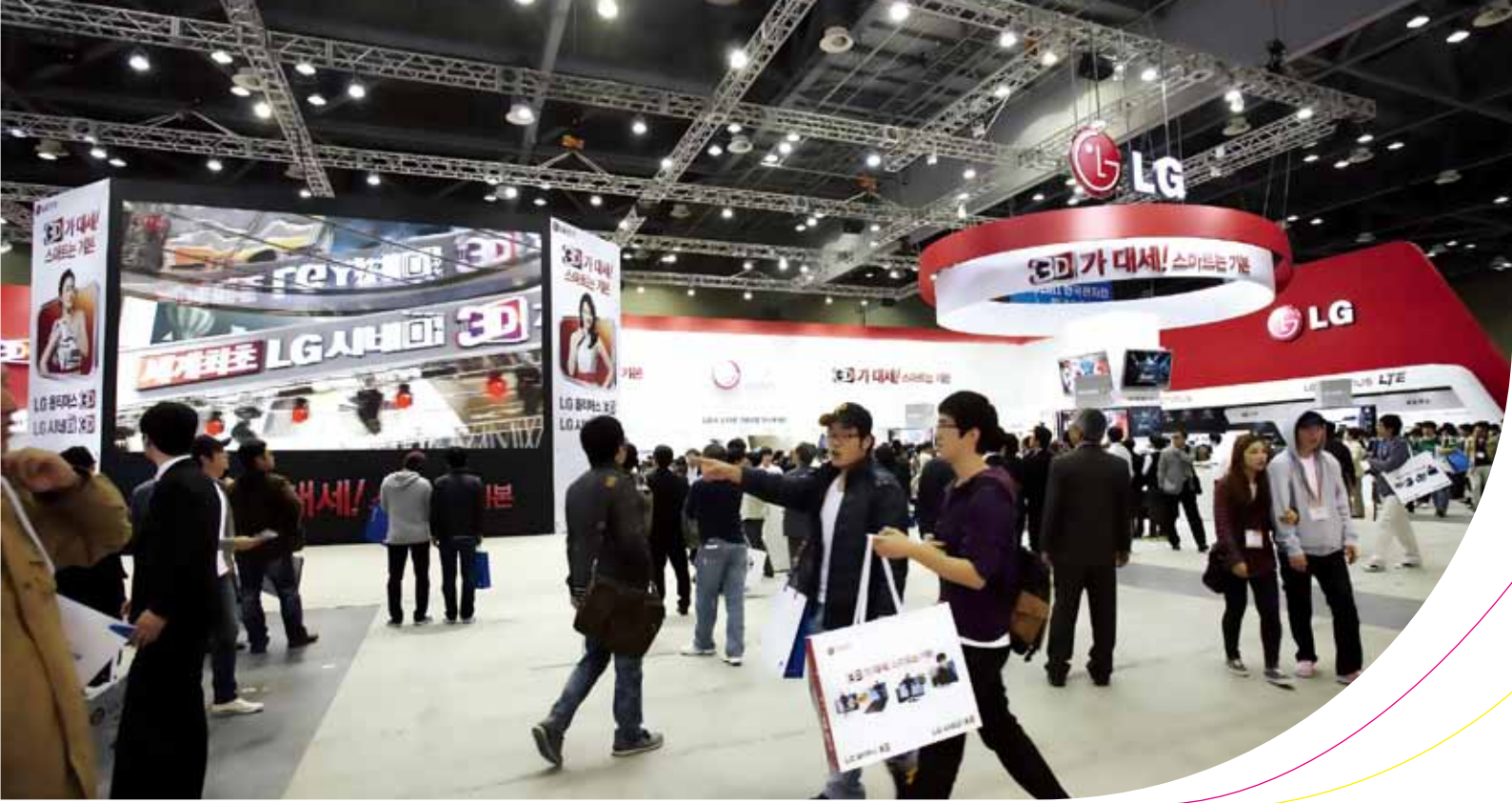




Be smArt!

Report on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 2011 결과





Content

Report on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2011 결과보고서

-
- 04 **Outline** -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 06 **Overview** - '3S,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을 Global 대표전시회로 우뚝 세우다.'
 - 08 **Opening & Gala**
 - 10 **Smart Samsung**
 - 12 **3D LG**
 - 14 **Software & Mobile** 'IT 산업의 키워드, 소프트웨어'



- 16 **Digital Broadcasting** '디지털방송장비 - 3D엑스포' 방송영상도 3D 품안
- 18 **IT Convergence** IT 융합관 '섞어야 가치 창출'
- 20 **Green IT** 그린IT 'IT도 숨을 쉰다'
- 21 **New & Smart** 스마트 시대를 이끌 신제품 총 출동
- 22 **Parts & Materials** 스마트의 탄생은 전자 부품 덕에 가능했다.
- 23 **Education** "이제는 교육도 스마트하게"
- 24 **iMiD**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 25 **iSEDEX** 그린 경영, 그린 반도체
- 26 **Distribution Pavilion** 글로벌 유통기업의 대거 방문
- 28 **Sales Fiar**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
- 30 **Media Coverage**
- 32 **Statistical Results**
- 34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Be smArt!

WOW

한국전자산업대전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2011.10.12~15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Outline

• 행사명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1

• 일시/장소

일 시 : 2011. 10. 12(수) ~ 15(토), 10:00~17:00

장 소 : 일산 KINTEX

• 전시규모

면 적 : 53,541m²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

참가업체 : 773개사 2,343부스

참 관 객 : 52,788명 (해외바이어 2,153명)

상 담 액 : 약 17억 달러

• 전시내용

정보통신,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소프트웨어, IT융합,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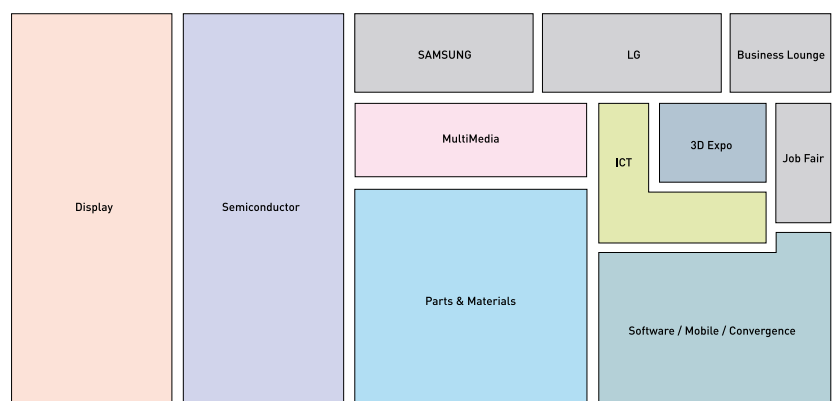
• 추진기관

주 최 :  지식경제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후 원 : NIPA, ETRI, KETI,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SW전문기업협회, 한국IT전문가협회

• 전시관 구성





•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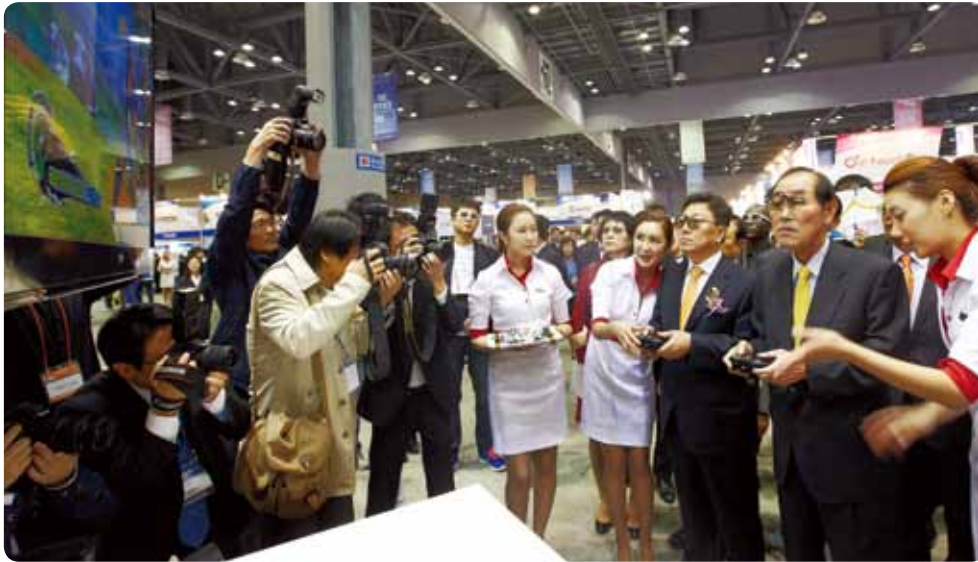
- 스마트 코리아 2011
- 글로벌 유통세미나
-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 그린PC시스템 기술확산 세미나
- 한·스페인 기술협력 세미나 및 기술상담회(산단공)
- 2011 한일 기술교류 프라자(산단공)
- 반도체장비 안전 표준 교육
- 스마트툴 소개, 비스텔
- 국제패키징기술 세미나, KSIA
- 디스플레이 제품 세미나, 중원통상
- 터치스크린 표준화 포럼
- 아날로그반도체 리더스 포럼
- 반도체장비 안전 표준 교육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추계심포지움
- 국제패키징기술세미나
- 시스템, 반도체 협력의 날
- 반도체 소자의 날 시장동향세미나
- 시스템반도체 벤더 세미나
- 그린 마이크로 접합 및 전자 패키징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화(청담정보기술)
- 임베디드 시스템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기 설계(하드커널)
- 2011 LTE 산학협력세미나
- 그린IT 기술 동향 및 전망 국제세미나
-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테스트(비엔피인터내셔널)
- 유망 문화기술 이전을 위한 설명회(한국콘텐츠진흥원)
- 전자의료기기 환경규제 구매 및 소프트웨어 벨리데이션 인증 세미나
- 대기업이 모두 실패한 삼차원입력기술(대신전자)
- 시스템반도체 벤더 세미나
- IMID, The 11th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 구매 및 수출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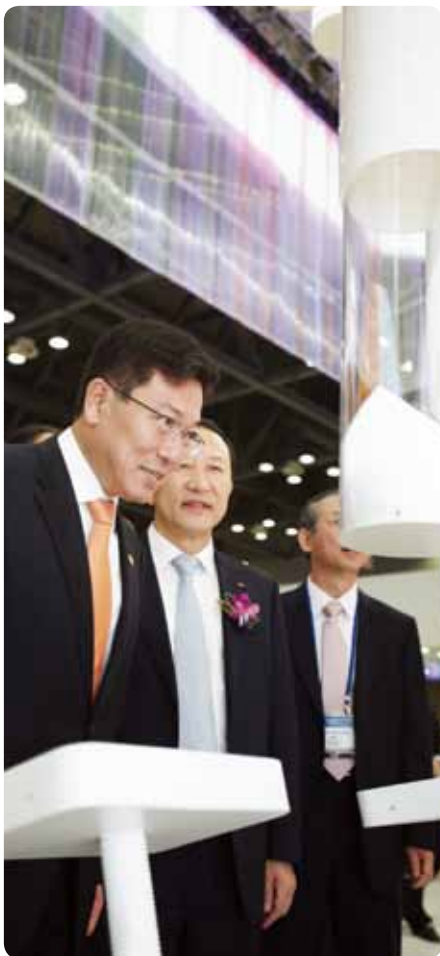
- 중국 전자부품 구매 및 수출상담
- 인도 IT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필리핀 IT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나이지리아 IT관련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일본 IT관련 부품구매 및 수출상담
- 호주 CCTV 제품구매 및 수출상담
- 러시아 전자제품 관련부품 구매 및 수출상담
- 미국 3D제품 방송음향장비 구매 및 수출상담
- 인도네시아 IT관련 제품 의료기기 구매 및 수출상담
- 몽골 방송관련 장비 시스템 구매 및 수출상담
- 시스템 반도체 비즈니스상담회

• 이벤트

- 전자산업 채용 박람회
- 갈라쇼 (글로벌 바이어 초청 만찬)



'3S,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을 Global 대표전시회로 우뚝세우다.'



첫 번째 S, S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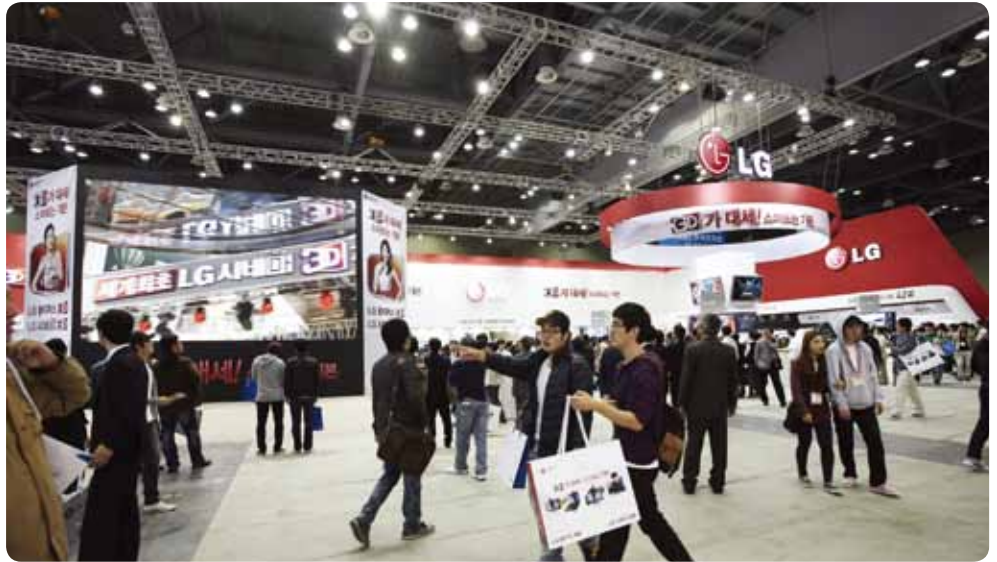
지식경제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한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이 'Be Smart!'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월 12일부터 나흘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첫날 개막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종합기술원장, 권영수 LG디스플레이사장 등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전자전의 서막을 축하하였다. 대한민국 전자IT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은 총 전시면적 53,541m²에 스마트폰, 첨단디스플레이, 첨단가전, 반도체 등의 세계시장 1위 제품 군은 물론 최근 각광받고 있는 3D와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솔루션까지 전시하여 차세대 전자IT전시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의 최대의 화두는 역시 '스마트'와 '3D'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와 '3D'를 내걸고 수많은 관람객을 맞이했다. 삼성전자는 약 1370m² 규모의 전시장 중앙에 4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48대와 55인치 스마트 TV 16대 등으로 구성된 'Smart Monument'를 설치해 다양한 콘텐츠와 스마트 라이프를 형상화했다. 약 1370m² 규모의 부스에 3D 토탈 솔루션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스마트 가전을 대거 선보인 LG전자 부스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였다. 전시장 입구에 370인치 초대형 3D LED 스크린을 마련한 LG는 3D 안경 2만개를 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최첨단3D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사기간 내내 첨단 3D게임존, 아이들 두뇌 집중력을 키워주는 브레인레이싱, 디지털레고를 이용한 창의성 프로그래밍 체험, 트랜스포머3 등 영등포 CGV와 공동으로 기획한 '3D 필름 페스티벌'과 현장 '3D무비상영관' 등 첨단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치러져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였다.

두 번째 S, Softwar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만났을 때'

올해 전시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만났을 때'이다. 이번 전시회는 신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가치와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자IT와 플랫폼산업의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의 바로미터가 될 소프트웨어/모바일관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참가한 소프트웨어 제품 군으로는 모바일 플랫폼, 보안솔루션, 웹기반 리포팅솔루션, CAD, 모바일오피스, 가상화솔루션, 산업용 OS기반 Fastboot 솔루션, 3차원 발음기관 시뮬레이터, 스마트폰 블랙박스, 등산 내비게이션 앱 등 60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채로운 대한민국 대표 아이콘들을 출품하여 최대 수요자인 하드웨어 업체들과의 만남의 장을 가졌다.



IT융합관에서는 30여 개의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세계 최초의 투명쇼케이스, 네비게이션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청소기, 앱(App) 테스트 자동화솔루션 등을 출품했고 '방송도 3D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방송장비관에서는 실시간 송출용 방송 그래픽 솔루션 'Tornado 3D',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모바일 기기전용 입체 변환 3D 소프트웨어 등의 최첨단 3D 방송 솔루션을 소개하여 수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세 번째 S, Sales Fair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

이번 2011 한국전자전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수식어구는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 인도,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의 유력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세일즈페어가 이루어졌다. 중국 100강 기업, 델타그룹(Delta Group) 등 러시아 기업 11개사, Pacific Group을 포함한 미국 기업 7개사가 구매 및 수출 상담을 했다. 이 밖에도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방문한 바이어들도 각종 IT솔루션, 의료기기, 3D장비, 방송음향장비에 대한 구매 상담을 했고, 특히 자원과 오일머니로 부를 축적한 브릭스(BRICs) 지역의 바이어만 200 여명이 넘게 찾아 17억달러라는 역대 최대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 태양유전, 머크, 하이닉스, 삼성전기 등 세계적 기업들과 부품, 제조장비, 유통,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기업 등이 전 산업 전반에 걸친 글로벌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이번 전자전을 명실상부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원스톱 마켓플레이스로 우뚝 세웠다. 글로벌 유통업체 브로커 포럼(The Broker Forum), 홍콩인벤토리(HongKong Inventory), 중국 화창베이, 일본 Chip-1Stop, 싱가포르 퓨처일렉트로닉스, 한국의 파츠파인더(Parts Finder) 등 세계 각국의 전자부품을 온라인으로 조달하는 주요 B2B트레이드의 허브들과 글로벌 전자IT 제조사 및 정부, 병원, 학교, 종교단체 등의 기관 구매담당자들이 대거 세일즈페어에 참가하였다. 이와 함께 500여명의 글로벌 바이어와 참가업체 대표 및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갈라쇼는 태권도, 갈라뮤지컬 등의 다양한 한류공연을 선보여 해외바이어와 국내참가업체간의 네트워킹 구축을 튼튼히 하였다.

2011 한국전자전은 첨단스마트제품뿐만 아니라 디자인, 콘텐츠, 유통 등에 걸친 다양한 테마관을 선보였고, 소프트웨어, 3D, 디지털방송, 그린PC 등 차세대 동력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좌),
윤상직 지식경제부차관(중앙), 전상현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우)

Opening & Gala

2011한국전자산업대전의 개막식에서는 테이프커팅식이 끝난 직후 윤상직 지식경제부차관,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종합기술원장, 권영수 LG디스플레이사장 등과 브로커포럼 진-미셸 스탬 부사장, 리치 리 지아웨이이 세일즈 매니저 등의 대형 유통회사 중역으로 구성된 VIP 투어가 이루어졌고 발 디딜 틈없는 뜨거운 취재경쟁은 성공적인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신호탄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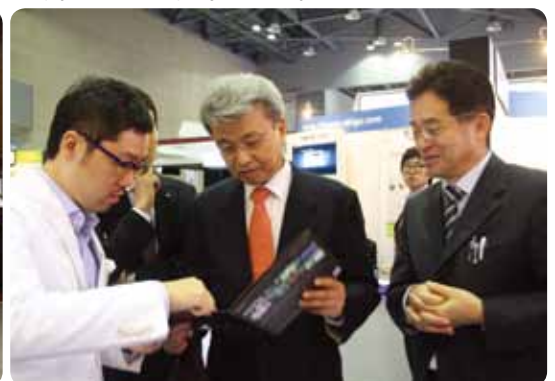
2011한국전자산업대전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식경제부 주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스마트코리아2011'을 개최하였다. '스마트혁명'을 산업 관점에서 아시아 주요국과 집중 조명한다'라는 주제로 1일차는 미래, 2일차는 산업, 3일차는 정책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1일차에 개최된 Creative Futures Forum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일본 최대 경영컨설팅사인 노무라종합연구소 후지누마 아키히사 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강태진 삼성전자 전무, John P. Roberts 가트너 리서치 부사장 등이 '스마트시대의 아시아 IT의 미래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 2011 한국전자산업대전 테이프 커팅식



▼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장(중앙),
강홍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우)





▲ 에워바이어 조형 갈라쇼



▲ 바이어들이 한국전자산업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 스마트코리아 2011

2일차에 개최된 IT산업전망 컨퍼런스에는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전상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최평락 전자부품연구원장 등이 연사로 참석하여 'IT 기술과 시장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3일차에는 IT Convergence 컨퍼런스가 문화부, 국방부, 행안부, 방통위 등의 7개 정부부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고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오해석 청와대 IT특별보좌관은 "스마트코리아 정책은 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역설하였다.

참가업체와 바이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 5층 아모리스홀에서 해외 바이어 250명을 포함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라쇼가 진행되었다. 개그맨 김영철의 진행으로 태권무, 갈라뮤지컬, 국악과 DJing,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한류공연 '갈라뮤지컬' ▶



▲ 관람객이 MIRROR POP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에 보고 있다



▲ TV를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을 시연에 보는 관람객

SMART SAMSUNG

스마트시대를 이끄는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스마트'와 '3D'를 내걸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 스마트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중앙에 46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48대와 55인치 스마트 TV 16대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Smart Monument'를 설치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세계 최대 75인치 LED화면에 스마트 기능과 3D기능이 있는 프리미엄 스마트 TV를 전시해 다양한 콘텐츠와 스마트 라이프를 선보여 '스마트'시대의 리더는 삼성전자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 고성능 노트북을 이용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



▲ Smart Monument와 갤럭시 SII HD LTE

▼ 3D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홈시어터 시스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디지털카메라 'NX200', 윈도우7기반의 '슬레이트PC시리즈', 친환경 레이저 프린터 등의 스마트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특히 태양광 전지판을 내장한 노트북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다. 또한, 슬레이트 타입의 고성능 윈도우7 태블릿 PC는 노트북과 동일한 기능을 구현한 제품으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PC인 셈이다.

슈퍼모데른 액정을 탑재한 갤럭시 SII LTE와 갤럭시 SII HD LTE는 기존보다 5배 이상 빠른 인터넷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스마트 케어'를 내장한 국내 최대 860리터 형 양문형 스마트 냉장고는 스스로 진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코드를 출력하여 A/S센터와 바로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갖추었다. '스마트 케어'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세탁기에도 적용되어 보다 빠르고 깨끗한 세탁과 절전을 가능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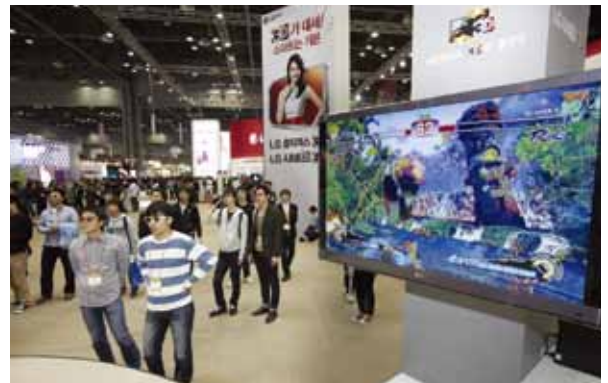
▼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선보인 삼성 가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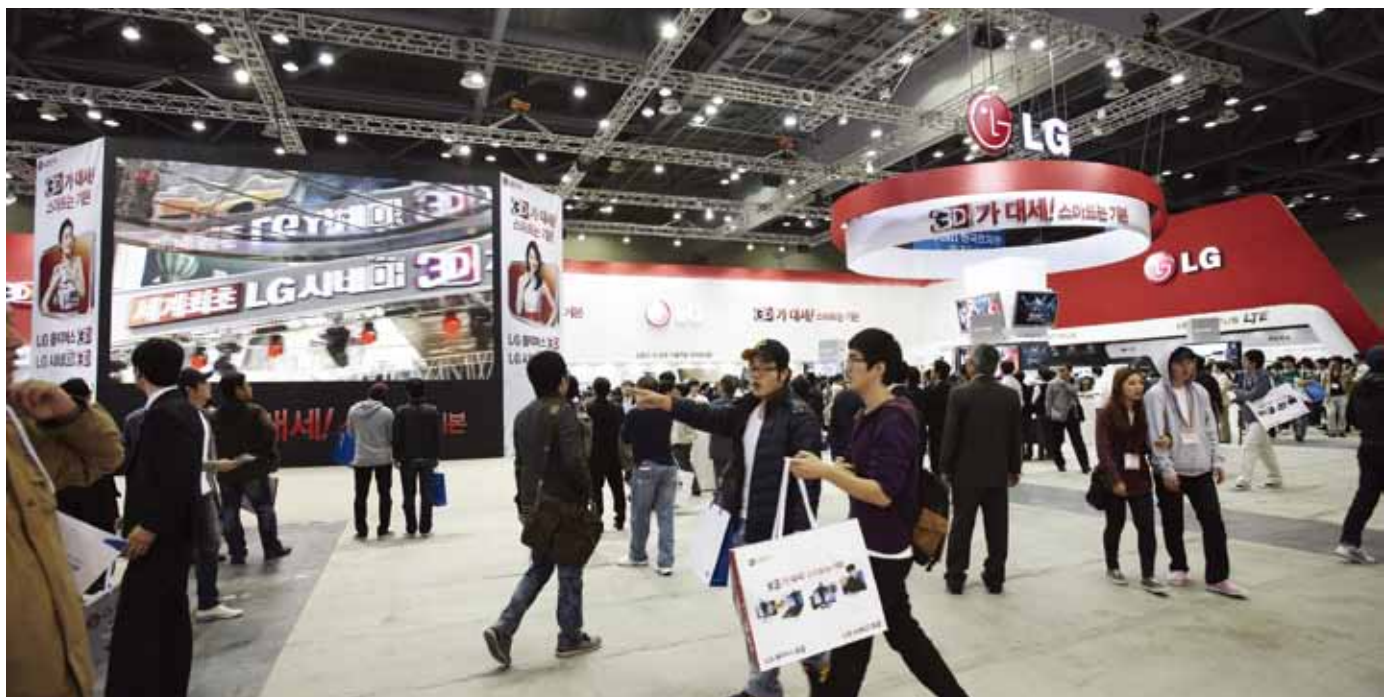
3D LG

LG전자는 전시장 입구에 370인치 초대형 3D LED 스크린을 설치했고, 업계 최대 크기인 72인치 시네마 3D TV와 시네마 3D 안경 2만개를 준비했다. 3D 통합체험존에서는 옵티머스 3D 스마트폰으로 직접 3D 콘텐츠를 만들고 시네마 3D TV와 프로젝터를 통해 대화면으로 즐기며, 시네마 3D 노트북으로 편집해 저장하는 등 '3D로 찍고 즐기고 간직하는' 3D 토탈솔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D 게임존에서는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는 '듀얼 플레이' 기능을 소개하였으며, 관람객들로 하여금 스트리트 파이터, 키넥트 등의 다양한 3D 게임을 생생한 입체 영상으로 즐길 수 있게 하였다. 게임존에서는 스트리트파이터4 게임대회와 비보이 댄스팀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국내최초로 3D촬영이 가능한 3D노트북 '엑스노트 A530'과 3D 풀 HD모니터를 탑재한 깔끔한 디자인의 일체형 PC 'V300'를 제품을 선보였다.



3D 입체게임을 ▲
구경하고 있는 관람객 ▼





▲ 생생한 입체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3D 게임존



가전에서는 기존 제품 특성 외에 스마트폰과 연계해 편리함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고효율·친환경 스마트가전을 선보였다. 홈플러스와 공동 개발한 웹오더링시스템(Web Ordering System)을 탑재해 쇼핑몰 웹사이트 구동이 가능한 냉장고가 처음으로 전시되었다. 그 밖에도 보관기한과 조리법을 알려주는 냉장고, 외부에서 세탁상태를 확인하고 전원제어가 가능한 세탁기, 원하는 요리정보를 알려주는 광파오븐, 원격 모니터링 기능의 로봇청소기 등 진정한 스마트 가전제품을 만날 수 있었다.



▲ 3D 통합체험존

◀ 국내최초 듀얼플레이 스크린



▲ 애플리케이션의 iPad 어플리케이션 '나는 될 거예요'

Software & Mobile

'IT 산업의 키워드,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혁명'이 소프트웨어 산업 개발에도 큰 영향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스마트혁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이미 전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는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선지 오래이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도 제 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에 이번 한국전자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가하였다.



에스케이씨엔씨의 넥스코어 ▲

▼ 발음교정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있는 관람객



▼ 팹스트부트 설명을 듣는 관람객





▲ 대회기간동안 활발한 면접이 이루어진 잡페어

에스케이씨엔씨(SK C&C)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업의 프로젝트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솔루션 ‘**넥스코어(NEXCORE) 시리즈**’를 소개했다. 또한 세계120국에 수출중인 인텔리코리아(Inteli Korea)의 ‘**캐디안(CADian)**’, 화면으로 혀를 포함한 구강 전체의 단측면을 동영상으로 보고 정확한 발음을 돕는 언어치료 시뮬레이터 **스피치미러(Speech Mirror)** 등을 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OS의 신속한 실행을 돕는 **패스트부트(Fast boot)**,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앱 ‘**프로이트(Ployd)**’, 등산용 내비게이션 앱 ‘**셀파(Sherpa)**’ 등의 다양한 앱 연동 소프트웨어가 소개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한편, 소프트웨어-모바일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인재 발굴을 위해 **잡페어(Job Fair)**가 진행되었다. 400여명의 온라인 지원자와 250여명의 현장지원자들이 참가했으며 코아로직 등 52개사에서 560건의 채용상담이 이루어졌다.



◀ 인텔리소프트의 캐디안

▼ BonXeon의 메모펜



▼ 관람객이 깃털을 사용하여 넥스트윈도우의 터치스크린을 시연하고 있다



'디지털방송장비 - 3D엑스포' 방송영상도 3D 품안

이제 방송도 3D다. 우리의 시각은 이제 평면이 아닌 입체를 느낄 수 있는 매체에 익숙해 지고 있다. LG가 기술력 세계 1위를 인정받는 시네마 3D TV를 선보이면서 우리는 3D 라이프를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게 됐다. 디지털방송장비관, 3D엑스포관에는 3D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 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 3D산업의 주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티브이로직, 비주얼리서치, 포디비전, 레드로버 등이 그들이다.

Digital Broadcasting

티브이로직(TV Logic)은 방송용 HD 모니터 생산업체로 방송 시야각과 모니터 색감의 품질이 우수하여 KBS, MBC, SBS, EBS 등 국내 중요지상파 방송국의 모니터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터 조사 기관, 퓨처 소스(Future Sauce)에 따르면 티브이로직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유럽 3위, 미주 4위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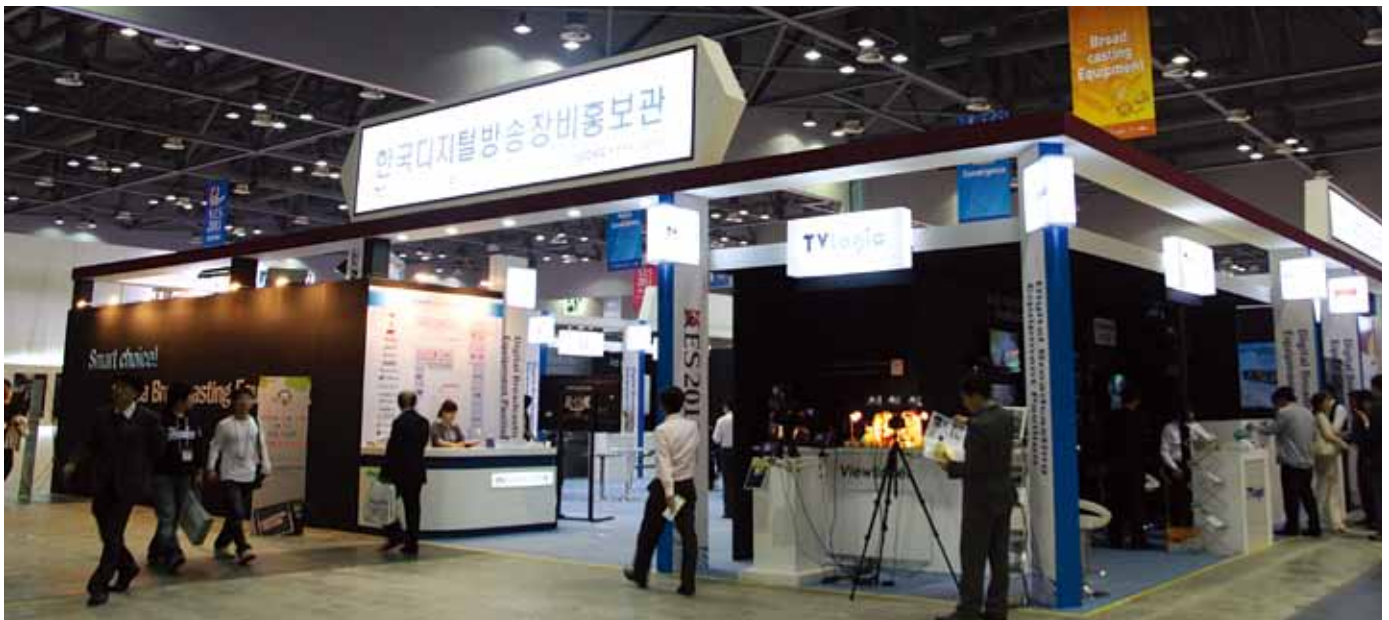
비주얼리서치(Visual Research)는 뉴스, 스포츠, 일기예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송출용 방송 그래픽 솔루션 '토네이도 3D (Tornado 3D)'을 출품했다. TV 프로그램 영상을 꾸며주는 자막, 도형 등의 그래픽을 만드는 솔루션이다. 비주얼리서치의 제품은 3D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욱 생생한 입체감 느낄 수 있게 제작되었다.

호서텔레콤(Hoseo Telecom)은 빌딩,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에서 공청, 위성, 자주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했다. '엠펙 엔코더(MPEC Encoders) 시리즈' '디지털 모듈레이터(Digital Modulators), 컨버터' 등이 주요 품목이다. 이 중 엠펙 엔코더는 디지털 신호를 받아 영화 없이 그대로 송출하는 하는 장비로 0.15초안에 입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풀 HD 1080p를 지원해 타사 제품보다 2배 가량 해상도가 높다.



▲ 티브이로직의 HD방송장비 및 모니터

▼ 한국디지털방송장비홍보관을 관람하고 있는 바이어





▲ 레드로버의 3D 입체 촬영의 핵심장비인 카메라 '리그(Rig)' 시스템

3D EXPO



3D 입체 전문기업 **레드로버(Redrover)**는 자체 기술로 국산화한 3D 입체 촬영의 핵심장비인 카메라 '리그(Rig)' 시스템 5종을 선보였다. 제주한라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3D입체 수중촬영용 리그와 저예산 독립영화제작자들을 위한 초저가 리그(소비가자가격 1700만원)도 큰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선보인 3D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인 True3DPT Ver.1.5는 파워포인트(ppt)자료를 그대로 불러와 입체값을 주어 3D입체자료로 변환하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포디비전(4DIVISION)은 3D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정부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를 출품했다. 말 그대로 안경이 필요 없는 이 제품은 순수 국산 기술로 업계 최초로 해외인증도 취득했다. 멀티비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국전자전에는 40인치를 선보였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무한대다. LCD, LED 모두 적용 가능하다. 포디비전은 현재 일본 LED 제조기업 히비노와 빌딩 옥상용 대형 입체 전광판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시제품은 12월경 출시될 예정이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MICRO DISPLAY)는 무안경 방식의 3D 패널을 출시했다. LG 3D 시네마 TV에 적용되고 있는 이 제품은 현재 20인치는 상용화 됐고, 25인치의 금년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 제품 덕에 누구나 TV를 틀면 자연스럽게 3D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TFT 최적화 설계돼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 3D 의료장비 시스템

▲ 선그라스처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된 3D 안경

IT 융합관 '섞어야 가치 창출'

산업간 믹스 앤 매치로 다양한 제품 개발에 성공

‘섞어야 가치가 창출된다’ IT산업에 다른 분야를 접목해 대한민국 IT산업의 획을 그은, IT 융합관에 자리잡은 기업들의 모토다. ‘믹스 앤 매치(Mix & Match),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디서나 흔히 듣는 말이지만 막상 하려 보면 쉽지 않은 그 일에 도전해 성공한 기업들을 한국전자전에서 만날 수 있었다. 바이널 아이, 오비고, MDS 테크놀로지 등 30여 개 사는 서로 다른 기술을 한 제품에 적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 기업들이다.

아이맥스의 뇌파제어기를
이용하여 모형기차를 움직
여 보는 관람객 ▼

바이널 아이(VINYL I)는 세계 최초의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를 가진 투명디스플레이 쇼케이스 ‘트랜스룩(Trans-look)’을 선보였다. 트랜스룩은 투과율과 색구현력을 높여 유리처럼 투명하고 또렷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 유리면에서 사용자가 인터랙티브하게 제품 정보와 영상 등을 조작할 수 있고 터치센서를 통해 쇼케이스 내부에 설치된 턴테이블 방향을 제어해 사용자가 실제 제품을 360도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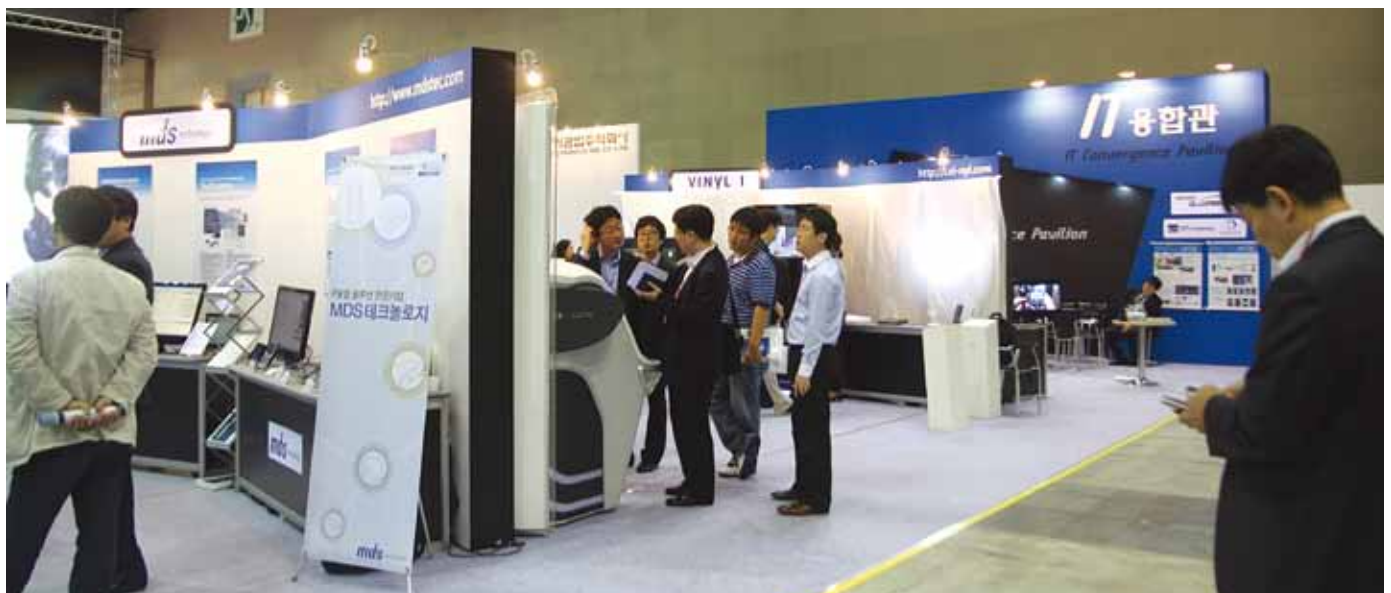
유진로봇은 청소기에 내비게이션 카메라를 장착해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청소 경로를 계산하는 기능을 가진 똑똑한 청소로봇 ‘아이클레보(iCLEbo) 스마트’를 선보였다.



유진로봇의 아이클레보 ▲



바이널 아이의 트랜스룩 ▶





▲ 휴롭의 아웃도어용 헤드셋
▼ 오비고 관계자가 바이어에게 차량용 웹브라우저를 설명하고있다



▲ 홍서산업의 부스에 설치된 화려한 모자이크 Cross LED벽

오비고(OBIGO)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PC에서 즐기던 웹서핑을 차량용 단말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웹브라우저를 선보였다. 무선네트워크 환경이 느리더라도 브라우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도의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이다.

MDS 테크놀로지는 앱(App)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테스트익스프레스(TestExpress)'를 소개했다. 테스트하는 과정을 자동화해 소프트웨어 품질을 효율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동 검사시스템을 자동화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홍서산업은 부스에 다양한 종류의 LED를 활용하여 화려한 모자이크 패턴의 Cross LED 벽을 제작하여 차별화된 연출을 선보였다.

이밖에 **휴롭**은 바이크와 레포츠 등 아웃도어용 헤드셋을 선보였다. 헬멧에 부착해 사용하는 이 제품은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타사 제품과도 인터컴 통화가 원활하다.

▼ MDS테크놀로지 부스의 모습



그린IT 'IT도 숨을 쉰다'

늘어가는 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환경오염, 자연재해와 식량위기 등의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구를 보호하는 노력을 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한국전자전 Green IT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어느 해보다 다양한 그린제품을 선보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가상화 시스템 기반의 그린PC2를 선보였다. 한 대의 PC로 네 명의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린PC2는 본체에 탑재된 그래픽카드 4개를 각각 하나의 모니터로 연결해 모니터마다 다른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리눅스 기반 가상화 시스템을 채택해 전력소모를 줄여 친환경적이다. 네 대의 PC를 하나의 본체로 운영해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다.

LG 프린터 마하젯은 1초에 한 장씩 출력이 가능한 프린팅 솔루션이다. 마하젯에 적용된 PSA (Page Straight Array) 프린트 헤드가 용지의 폭과 동일하게 고정돼 7만4000개의 노즐에서 초당 9억개의 잉크방울을 분사한다. 이를 통해 프린트 인쇄 비용도 컬러 1장 당 55원으로 줄였고 또한 소비 전력과 탄소 발생량도 1/17분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녹색성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그린 IT 패널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외부 전력없이 태양광이나 조명 등 주변의 광원을 활용한다. 46인치, 22인치, 13.3인치 투명디스플레이와 새로운 백라이트 기술을 활용했다. 삼성은 이밖에 소비전력을 최대 50%까지 낮춘 저소비 전력 디스플레이도 선보였다.

삼성전기는 새로 공개된 모터를 출품했다. 이는 삼성전기가 2009년부터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존 휘발유 내연기관을 대신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 중 자동차용 충전 모듈은 최대 효율이 93%에 이른다. 이 제품의 개발로 전기자동차들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게 돼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그린PC2 시스템



LG 마하젯 프린터



삼성전기의
차량용 충전 모듈



파워프라자의 전기
자동차 예쁘자나 3호





▲ 이노웁스의 신개념 스마트폰 케이스
▼ 조이스 테크놀로지의 X-pointer

스마트 시대를 이끌 신제품 총 출동

한국전자산업대전에서는 스마트 라이프를 지향하는 현대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대거 등장했다. 레저용 블루투스 헬멧, RF 무선 프레젠테이션 등에서부터 전력계측기, 전자파차단기 등까지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총 출동했다.

조이스 테크놀로지는 국내최고의 RF 무선 프레젠테이션 'X-pointer'를 선보였다. X-pointer 시리즈는 플러그 앤 플레이, 30미터 유효거리, 레이저 포인터, 페이지 다운/업, 블랙 스크린 등 다양한 기능 보유하고 있다.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디자인을 채용한 제품이다.

다원디엔에스는 가정용 전력계측기 '파워매니저(Power Manager)'를 선보였다. 파워매니저는 전자제품의 실제소비전력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인지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가정용 전력계측기다.

유한하이텍은 인텔의 ITX 보드에 맞는 ITX 케이스를 지난 3년 동안 개발해온 전문 기업이다. 유한의 ATX PC케이스는 스마트 유저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으로 무선/유선 라우터 등을 통해 스마트 홈 구현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HTPC 케이스는 홈씨어터 기능을 활용하는 유럽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노웁스는 기존의 후크로 연결되는 케이스 방식에서 탈피, 유연한 탄력성 물질로 연결고리를 대체한 0.7T 수준의 두께의 슬림 케이스를 개발했다. 이노웁스의 갤럭시 S2 케이스는 범퍼의 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소재로 고무와 글로스 커버를 사용했다. 신제품인 DUES 케이스는 고무와 글로스의 장점을 합친 제품이다.

청택은 보이스 에코 이어폰을 개발, 출품했다. 보이스 에코 이어폰은 유저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첫 모바일싱어폰 이어폰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발음연습도 할 수 있어 교육용으로 유용하다.

전자파차단 전문업체 **노이즈텍**은 차량용 전자기기 시험기, 정전기시험기 등의 다양한 전자파차단 시스템을 선보였다.

노이즈텍의 전자파차단 시스템 ▲
Triple Junction의 명품인증시스템 ▶
다원디엔에스의 파워매니저 대기전력차단기 ▼



청택의 보이스 에코 이어폰 ▲



▲ 많은 관람객으로 항상 복적인 타이오 유덴
▶ 글로벌 기업 번즈
▼ 예림 GMS의 전도체 코팅 유리



스마트의 탄생은 전자 부품 덕에 가능했다.

이번 한국전자전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제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 제품들의 탄생은 함께 참가한 글로벌 전자부품 및 모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실질적인 스마트얼 품이 가능하게 뒷받침한 부품과 모듈을 살펴보자.

국내 최고의 부품 기업, **삼성전기**가 출품한 많은 제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0603사이즈 2.2uF 극소형 초고용량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다. 스마트폰과 LCD TV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제품을 380cc 와인잔에 가득 채운 양이 3억 원에 해당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또한 삼성전기의 전기 자동차용 전기 충전 모듈은 93%의 충전 효율성을 가진 제품으로 국내 최고 기술을 자랑한다. 일본 기업, **타이오 유덴**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초 1206 사이즈 220uF MLCC 등 많은 전자부품 및 모듈을 전시했다.

글로벌 기업 **번즈(Bourns)**는 통신, 산업, 소비자 제품별로 부품 및 모듈을 전시 했는데 그 중 돋보이는 제품은 전력과 전압을 제어 할 수 있는 제어 장치였다. 이 장치는 점점 소형화 되는 전자제품의 핵심 기술이다.

국내 중소기업들도 이번 전시회에서 많은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했다. **예림 GMS**는 특수유리 및 유리가공기계를 수입하는 업체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국 필킹톤 그룹의 전도체 코팅 유리를 선보였다.

▶ 삼성전기가 출품한 세계 최초의 극소형 초고용량 적층 세라믹콘덴서 ▼





▲ 아이들이 유진로봇 아이로비Q를 관람하고 있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디키-3000



▲ 동양미래대학 학생들의 출품작



▲ 클루소프트의 스피치미러



◀ 유진로봇의 아이로비 Q

Smart Robot the Best Study-buddy

"이제는 교육도 스마트하게"

교육계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치원의 유아교육 로봇 보조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교육용 로봇 시범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최대 20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R-러닝(Robot-learning) 시장은 2018년까지 6500억원이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스마트 열풍을 대변하듯 이번 전시회는 유진로봇의 유아교육로봇 '아이로비Q(iRobiQ)',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의 디지털 기초 학습 키트 '디키-3000(DiKi-3000)', 클루소프트(Clusoft)의 언어치료 및 학습 소프트웨어 스피치미러(Speech Mirror) 등이 출품되어 관람객들의 R-러닝 시장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증폭 시켰다.

2002년 처음 교육용로봇을 상용화한 유진로봇은 아이로비Q를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1000여대 이상 판매하였으며, 국내 국공립 유치원 보급율 15%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할 귀여운 외관으로 디자인된 아이로비Q는 로봇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해주며, 네비게이션 자율이동과 로봇과의 대화, 터치감지 및 반응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사용자에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다. 또한 Human-robot interaction 기술을 탑재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인식가능하며 인식률이 무려 90%나 된다.

작년에 이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디지털 기초 학습 키트 디키-3000을 선보였다. 디키-3000은 학생들이 레고블록과 비슷한 형태의 전자부품 블록을 꽂아 실험하는 키트다. 블록 안에 단자가 들어 있어 선과 전자부품을 고정하고 2단자블록, 3단자블록 등을 연결해 Mp3 플레이어 레벨에 이르는 복잡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디키-3000은 전시기간 내내 전시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클루소프트(Clusoft)는 언어치료와 학습에 도움을 주는 3차원 발음기관 시뮬레이터 스피치미러(Speech Mirror)를 소개했다. 스피치미러는 화면으로 혀를 포함한 구강 전체의 단축면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어 정확한 발음을 돕는 소프트웨어다. "박봉래(Park, Bong-Lae) 대표는 "언어장애,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의 한국어학습을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언어치료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제품을 소개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i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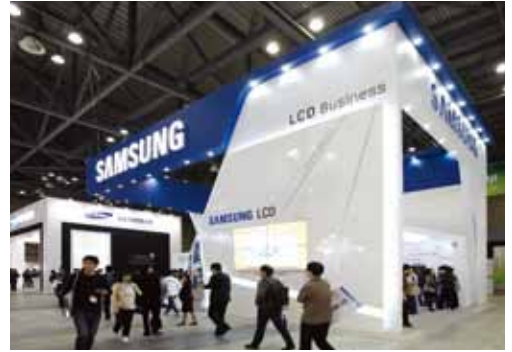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시회(iMiD) 2011'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 10개국서 97개사가 참가하여 더욱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했다. 전시 기간 중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디스플레이 잡 페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에는 중국, 대만 등 중국계 패널업체 구매담당자 30여명이 초청돼 국내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들과 1대1 무역상담회를 가졌다. 국제정보디스플레이 학술대회는 외국 논문 비율이 작년보다 7% 증가해 세계 3대 디스플레이 국제학술대회 입지를 굳혔다. 올해는 안승권 LG전자 사장(CTO) 등 기조발표 3편, 튜토리얼 및 워크숍 발표 14편 등 총 17개국 초청연사 112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초절전 그린 IT 패널, 풀 HD급 3D 액티브 글라스를 공개했다. 3D안경의 셔터링 기능을 패널화 해 TV 화면 전면에 부착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로 인해 풀 HD 지원이 가능해졌다. 3D 영상을 볼 때도 해상도의 저하가 없으며 3D 시야각이 넓어 움직이거나 누워서도 시청이 가능해 졌다. 기존의 공간분할 방식은 좌우 차단방식으로 깜빡임이나 화면에 줄이 가는 현상이 생겼지만 이 제품은 시분할 방식으로 1초에 120번, 240헤르츠로 좌우영상이 교차 디스플레이 된다.

LG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 광시야각(AH-IPS) 디스플레이와, 깜빡거리지 않는 3D 기술을 자랑하는 FPR 3D 디스플레이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관람객의 발길을 끌었다. AH-IPS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Amoled) 방식의 250ppi의 한계를 극복하고 리얼 HD를 구현한다. SRGB 지원으로 자연에 가까운 색을 구현하며, FPR 3D 디스플레이는 원 편광필터를 사용해 움직이며 TV시청을 해도 선명한 화질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좌우영상이 동시에 들어와 깜빡임이 없다는 플리커프리(Flicker Fre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진정한 3D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는 현 주력 사업인 LCD용 액정 및 3D용 패턴드 리타더 (Patterned Retarder)에 사용되는 리액티브 메조젠(Reactive Mesogens)을 비롯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관심을 받고 있는 OLED 및 Flexible 디스플레이의 유기전자 소재를 출품했다.

유르겐 쾨닉(Juergen Koenig) 대표는 "머크에게 iMiD는 액정분야와 새로운 디스플레이 소재 등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라면서, 이번 행사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최근 기술동향, 새로운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고객과 참관객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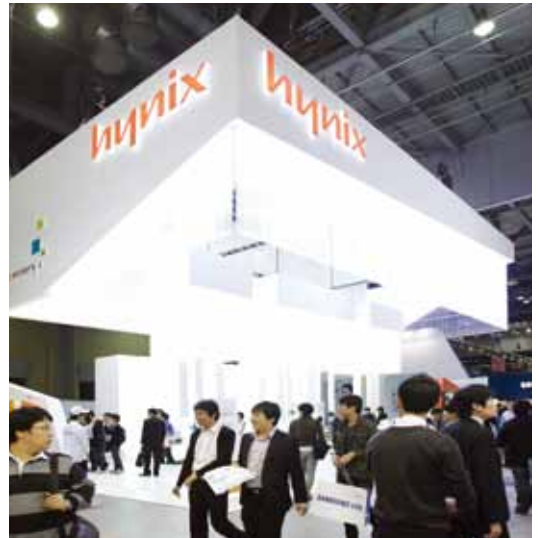


그린 경영, 그린 반도체 [iSEDEX]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인 '제13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이 킨텍스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설계, 장비, 재료분야의 최첨단 제품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술경연장이다. 올해 행사에는 동부하이텍(Dongbu Hitek), 삼성전자, 하이닉스(hynix)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Amkor Technology Korea) 등 글로벌 기업들도 참여해 그린 경영을 지향하는 솔루션과 반도체 등을 선보였다.

1999년 이래 13년째 개최되는 이 행사는 반도체부문에서 가장 큰 전시회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와 세계 시장 1위에 도전하는 시스템 반도체 품목들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기술세미나로는 반도체장비 안전표준 교육, 아날로그반도체 리더스 포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추계심포지움, 융복합세미나, 기술이전페어, ISMP 등이 진행됐고 무역상담회, 채용박람회도 함께 개최됐다.

"아날로그반도체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아날로그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파악하는 자리였다. 전력반도체, 아날로그반도체,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별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장동향 세미나도 열렸다. **동부하이텍**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아날로그 특화공정 0.18마이크로 BCDMOS(Bipolar Cmos Dmos) 기술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20나노급 DDR3 D램을 홍보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세계 최초 50마이크로 이하 극 미세피치를 구현한 Cu Pillar FPFC(Fine Pitch Flip Chip)를 출품했다. **하이닉스**는 8Gb 모바일 LPDDR2 D램과 500만 화소 시모스이미지센서(CIS)를 공개했다.



▼ 동부하이텍 부스



▲ 실리콘마이터스 부스

▼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부스



글로벌 유통기업 대거 방문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B2B트레이드 허브로 유명한 브로커 포럼(The Broker Forum), 홍콩인벤토리(HongKong Inventory), 중국 화창베이, 일본 Chip1Stop, 싱가포르 퓨처일렉트로닉스, 한국 파츠파인더(Parts Finder) 등이 대거 참가하여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

Broker Forum

온라인 무역의 장 한국을 찾다



전 세계 60개국에 3,000여 개의 회원사를 둔 **브로커포럼(Broker Forum, www.brokerforum.com)** 이 한국전자전을 찾았다. 이들 회원사들은 각종 전자 부품 및 수동부품용 집적칩(Integrated Chip),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는 회사들이다. 지아웨이이(Jiaweiyi), TY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리미트(TY International Trade Limited), 칩나인(Chip9) 등 이번 전자전을 찾은 업체들은 행사 3일내내 적게는 수십여 차례에서 많게는 백수십건이 넘는 미팅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 참석한 리치 리(Rich Lee) 지아웨이이 세일즈 매니저는 "지아웨이이는 7년 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전자부품 유통회사로 주요 취급 품목은 반도체와 자동 및 수동부품"이라 소개하고, "오늘까지 모두 120여건의 미팅을 진행한 결과 실질적인 계약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큰 바이어들을 많이 만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자전에 참석한 브로커 포럼(The Broker Forum) 진-미셸 스태(Jean-Michel Stam) 업무총괄 부사장(vice-President of operations)은 "우리는 전자부품 바이어와 벤더들을 위해 글로벌 트레이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한다."면서 "브로커 포럼은 6000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제조사와 벤더들을 이어주고 있다."고 브로커 포럼을 소개했다. 스태 부사장은 "한국전자전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찾기를 희망한다."면서 "브로커 포럼의 서비스는 회원사들이 서로 건강한 가격 책정을 돕고,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면서 좋은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Hong Kong Inventory

"중국시장 진출의 길 함께 한다."

2005년부터 꾸준히 한국전자전에 참가해온 **홍콩인벤토리(www.hkinventory.com)**가 올해도 한국전자전을 찾았다. 홍콩인벤토리는 세계 각국의 전자부품을 온라인으로 조달하는 B2B 트레이딩 허브다. 빈센트 루이(Vincent Lui) 홍콩인벤토리 대표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자전을 찾았다."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어장벽을 줄이기 위해 한국인 스태프를 고용하고 있고 홍콩인벤토리 웹사이트에서도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루이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여러 국가의 회원사와 많은 미팅을 가졌고 중국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발굴해 낸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만 400여 개 사다."고 덧붙였다.

루이 대표는 "중국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전자부품 제조사는 홍콩인벤토리를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 말하고, "홍콩인벤토리는 회원사들이 전세계의 공급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물품 적하 전 중국 내 수입절차 등 국가별 관세조항을 철저히 검토해 회원사의 리스크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uture Electronics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는 특화 서비스



이번 전자전에 참가한 **퓨처 일렉트로닉스**는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업체이다. 1968년 설립하여 현재 전자제품 유통 업계의 가장 뛰어난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업체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인지도는 공급사 및 고객사와 긴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유지, 그리고 제품 디자인 주기(design-production cycle)별 모든 단계에서 전문성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

퓨처 일렉트로닉스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EMEA), 미국, 아시아 각 지역마다 특화된 지사를 갖추고 있고, 기술 영업력을 갖춘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Field Application Engineers)팀이 각 지사마다 배치되어 있어 고객사의 설계 및 제조 사이트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 넘어 지역마다 새로운 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인정 받았다.

퓨처 일렉트로닉스의 Vice President Anthony Alberga는 이번 전자전에 참가하여 한국 시장에서 퓨처 일렉트로닉스의 입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을 자신했다.

HuaQiang Bei 중국 최대 전자전문 유통상가

올해 전시회에 참가한 글로벌 유통전문 업체들 중 중국 심천의 **화창베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유통전문업체이다. 화창베이는 중국 심천에 한국의 용산전자상가의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의 전자전문 유통상가를 갖고 있는 온.오프라인 전문 유통업체이다. 2002년에 설립된 이후로 전자 부품, IC, 컴퓨터 부품 등을 전세계의 바이어들에게 활발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의 파츠파인더, 일본의 Chip1Stop과 함께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3국의 대표급 전자부품 유통업체로 참가해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소개했다.

화창베이는 한국전자전에서 얻게 되는 한국의 다양한 전자제품과 전자산업의 트렌드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 참가의 목적을 밝혔다.



Parts Finder 토종 전자부품 B2B 마켓플레이스

토종 전자부품 B2B 마켓플레이스, **파츠파인더(www.parts-finder.co.kr)**를 11월 오픈한 (주)파츠파인더 (대표 김윤식)는 한중일 연합전자부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파츠파인더는 한국전자전 주최사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전자부품 유통 전문회사 (주)코리아파츠, 무역포털 이씨플라자(EC Plaza)가 함께 만든 전자부품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로서 제조에서 유통까지 아우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자제품의 구매 및 수출을 대행하고 해외 마케팅까지 이르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 250만, 중국 1억, 일본 850만 여건의 부품 DB 연계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부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츠파인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상헌 이사는 "한국 내 전자부품 상거래 사이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짝퉁, 허수 재고를 해결하고 회원사들이 일본과 미국 등 메이저 업체의 재고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파츠파인더"라면서, 현재 "1,000만개의 전자부품을 검색할 수 있고, 앞으로 유럽의 재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

이번 전시회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글로벌시장에서 초청된 바이어들이 세일즈페어에 대거 참가하여 전자전을 빛내었다. 특히 중국 100강 기업, 델타그룹 (Delta Group) 등 러시아 기업 11개사, Pacific Group을 포함한 미국 기업 7개사 그리고 인도, 필리핀,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초청된 바이어들이 구매, 수출 상담을 하여 총 17억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Russia 시장의 신제품 갈망



Technical Director of Delta Group,
Mikhail Petrov



Director of Service Department at
Delta Group, Almazov Pavel

Mikhail Petrov 델타그룹 기술 이사(Technical Director)는 러시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만한 전자 제품을 찾기 위해서 한국전자전에 참가했다. 델타는 최신 오디오, 가전제품, 그리고 전자기계 등을 러시아 시장에 선보여온 러시아 최고의 유통업체다. 페트로브 이사는 "요즘 최대 관심사는 그린 가전,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품들"이라면서, "한국 에코 가전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델타는 예산을 더욱 확충해서 고기술 제품군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중국제품보다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인 한국 제품이 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월 3000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델타그룹의 한국전자전 방문은 우리 기업의 수출로 직결될 수 있는 통로로 보여진다. 페트로브 이사는 "한국 기업들이 개발, 생산 기술을 극대화하고 품질과 가격을 유지한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lmazov Pavel 델타 서비스부문 이사(Director of Service Department)는 한국이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여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전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의 러시아의 트레이드 쇼에 참가를 권한다. 또한 러시아는 그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CD와 DVD 배급사였던 러시아의 Technopark사의 제품관리부장과 Bondaernko Maxim과 마케팅 부장 SuskinAndrey는 저장매체 공급사를 찾고 있다. "우리는 태블릿 펜과 터치스크린 등 러시아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찾고 있다."면서 "온라인 게임 강국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눈여겨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에서 온 또 다른 바이어인 Alexy Savonekov 씨는 "전력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찾기 위해 전자전에 오게 되었다."며 업체와 직접 미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Indonesia 한국 가전의 열풍

1991년부터 IT제품을 공급해온 베테랑 인도네시아 IT 유통사 Megatronix사의 Henky Tjokroadhiguno 이사는 "한국전자전에서 창업을 위한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가전제품을 가져가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어 다른 나라의 여타 전시회보다 한국전자전에서 더욱 많은 제품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전자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여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Director of Service
Department at Delta Group,
Almazov Pavel

Canada 한국 전자부품을 세계시장으로



Jean-Michel Stam -
The Broker Forum, Canada

캐나다 브로커포럼 (The Broker Forum)의 Jean-Michel Stam 부회장은 "6000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부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품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품을 제공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한국전자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Mongolia 한국전자대전에서 최고의 방송장비를 찾다

몽골 케이블 TV업계의 선두주자인 Sansar Cable은 60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Daminsuren 선임 엔지니어는 “한국전자전에서 최고의 트랜스미터와 케이블링 솔루션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한 많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보고 있고 이미 한국 회사 두 곳과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Daminsuren
Sansar Cable, Mongolia

Nigeria 한국제품 아프리카 시장 선도 할 수 있나



Peter Odimegwu
of Kamdi Computers



Ethel Odimegwu
of Ethel Ventures

Kamdi Computers의 Peter Odimegwu 대표와 Ethel Ventures의 Ethel Odimegwu 대표는 나이지리아 IT회사를 대표하여 한국전자전에 참가했다. 두 회사 모두 급격히 부상하는 아프리카 IT 시장에서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다. 두 회사는 모두 “한국전자전에서 정말 좋은 네트워킹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었고 공급할 가치가 충분히 많은 제품들을 많이 눈여겨보았다”면서 “2012년에도 반드시 한국전자전에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 USA 차세대 3D 기술 인도하는 한국

Spider Man과 같은 대규모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에 애플 기반의 3D 제품을 제공하는 Melrose Mac사의 Gary Carter 대표는 미국시장에 적합한 3D 프로덕션 기술을 찾기 위해 한국전자전을 찾았다. Carter 대표는 “현재 3D 프로덕션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반면 3D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프로덕션은 아직 없다. 나는 한국 회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매우 궁금하다”며 “삼성, LG, 레드로버 등의 제품이 가장 인상깊었다.”며 카메라를 응용해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열광적으로 설명하는 열의를 보였다.



Gary Carter
Melrose Mac, USA

전력공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아

미국 Mauel Corporation의 구매담당자 Ray Blankenship은 전력공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기 위해 한국전자전을 찾았다. 여타 전시회에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전문적인 솔루션이지만 한국전자전 소프트웨어관을 찾은 Mauel 구매담당자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력 공급 장치가 멈출 때 마다 수백만 달러가 낭비된다.”면서 “3D 제품으로 이런 전력 차단에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수 있는 솔루션을 찾고 있었는데 한국전자전에서 가능성을 찾았다.”고 밝혔다.

MEDIA COVERAGE



▲ KBS



▲ YTN



▲ 경계투데이

- 신문보도

EBN, Korea IT Times, K모바일, SBSCNBC, YTN, YTN TV, ZD넷코리아, 건설경제신문, 경인일보, 경제투데이, 경향신문, 공감코리아, 내일신문, 노컷뉴스, 뉴스웨이, 뉴스토마토, 뉴스핌, 뉴시스, 데이터넷, 동아일보, 디지털타임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베타뉴스, 부산일보, 브레이크뉴스, 서울경제, 서울신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시민일보, 시티신문, 씨앤비뉴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이뉴스24,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이버즈, 이투데이, 재경일보, 조선비즈, 중앙일보, 천지일보,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등



Web Media & Blog





2011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Statistical Results

- 참가실적

- 면 적 : 53,541m² (킨텍스 1~5개홀)
- 참가업체 : 773개사 2,343부스
- 참 관 객 : 52,788명 (해외바이어 2,153명)
- 상 담 액 : 약 17억 달러

- 부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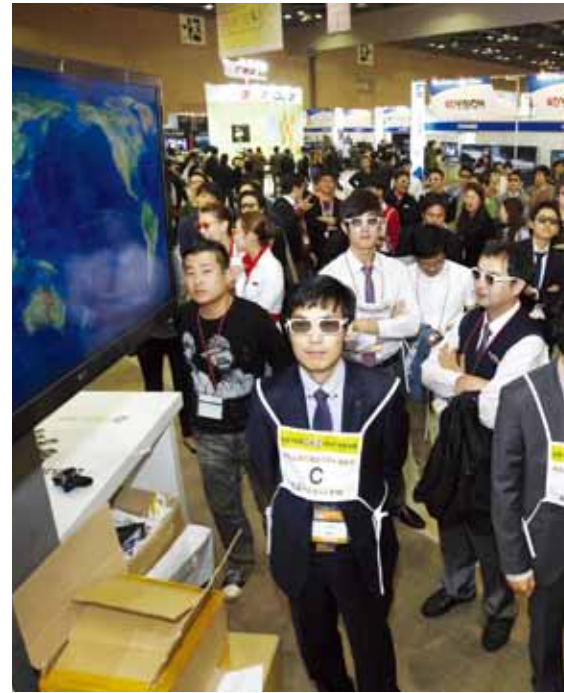
- 무역상담회 : 인도, 러시아, 중국 유통상, 반도체 관련 바이어 초청 세일즈페어 등
- 컨퍼런스 : 스마트코리아 등 50회
- 이벤트 :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KOREA ELECTRONICS GRAND FAIR 2012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제43회 한국전자전 (Korea Electronics Show 2012)
주 제 : Korea Electronics Shows What IT Will Be!
기 간 : 2012년 10월 9일(화) ~12(금), 4일간
장 소 : 킨텍스 제1전시장 1~5홀
규모면적 : 53,541m²
참가업체 : 800개사, 2,500부스 (국내 450개사 / 해외 200개사)
참관객 : 60,000명
주 최 :  지식경제부  세계속의 경기도
주 관 :  KEA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후 원 : NIPA, ETRI, KETI, FKII, KOSEA, PAK
해외협력기관 : CEAC, CCPIT, CECC, HQEW (중국), TEEMA (대만), JESA, Chip1Stop (일본), HKTDC (홍콩), AEECC (아시아전자전협력회의), IFA (독일), CES (미국), RATEK (러시아), CMAI, TEMA (인도), VEIA (베트남)



전시분야

ICT

Telecommunication, Mobiles, Navigation, IP, Net Solutions, Antennas, Cable, Computing, PDA, Notebook PC, Server, Solution, S/W, Storage

Imaging and Solutions

Beam-projector, Imaging Machine, Photo, Digital Camera, Printer, Camcorder, Memory solutions

Multimedia and Home Entertainment

TV, DVD, Home Cinema, 3D TV, IPTV, Monitor, HiFi, Loudspeakers, Games, MP3, Hands-free

Home Appliances

Refrigerator, Air-conditioner, Vacuum cleaner, Washing machine, Dish washer, Coffee machine, Electric toaster, Beauty care appliance, Kitchen appliance

Car Electronics and Securities

Black box, Car electronics, CCTV, Networks, Bio or Sign capture, Cyber security

Convergence and Other applications

Broadcasting equipment and systems, Green IT, Digital lego, e-health, Product Design

Modules, Parts and Materials

LCD, OLED, LED, Solar, PCB, MLC, Capacitor, Resistor, PoC, Sensor, Switch

Software

Mobile S/W, Embedded System, D/W & CRM, Cloud Computing, Data Storage, Information Security, Package S/W, System Integration



온라인 신청가능
www.kes.org

참가 신청

신청기한

2012년 6월 29일까지 선착순 신청접수

참가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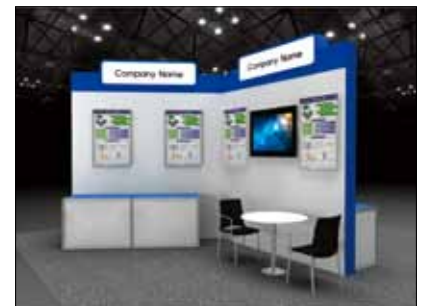
구분		9m ² (1부스)	
독립부스	국 내	240 만원	
	해 외	US\$ 2,600	
조립부스	기본형	국 내	280 만원
		해 외	US\$ 3,200
	프리미엄형	국 내	320 만원
		해 외	US\$ 3,900

독립부스 (Space Only) - 면적만 제공, 장치는 참가업체 자체 시공

조립부스 (Shell Scheme)

면적 및 기본 장치공사 포함 (기본시스템, 파이넥스, 간판, 조명 등 제공)

프리미엄부스 (Premium) - 목공장치, 테이블과 의자 제공



참가비 할인혜택

조기신청할인

· 10% 할인 : 2012년 3월 30일(금)까지

· 5% 할인 : 2012년 5월 31일(목)까지

※ 기한 내 참가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참가업체만 해당

VIP고객 추가 할인

KES 3년 연속 참가 중소기업은 추가 5%할인 (2010, 2011, 2012 연속 참가)

참가비 납부

납부기한 : 2012년 6월 29일 (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598601-04-001578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반드시 업체명으로 입금. 송금수수료는 참가업체 부담

※ 참가신청시 참가비의 50% 납부하고 납부기한까지 잔금납부

참가 문의

KEA 전시마케팅팀

전화 : 02-6388-6062~8

이메일 : kes@kes.org

팩스 : 02-6388-6069

홈페이지 : www.kes.org





Korea Electronics Show 2012

~WOW

의 전자사

Korea
Electronics
Shows What  Will Be.

한국의 전자산업이 IT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KES 2012

10.9 (화) ▶ 12 (금)

KINTEX